



빗나간 열정이 물의를 빚었다. 5일 광양에서 벌어진 전남-인천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에 내려가 전남 구단직원을 폭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광양 | 남정현 기자

전남 직원 폭행, 빗나간 인천 팬심

현장르포

인천팬 2명, 퇴장 항의하다 전남 직원 가격
여성경호원은 원정팬에 신체 접촉 봉변도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검토·징계도 불가피

열정도 과하면 화를 불러일으킨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렇다.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 인천은 잘 싸우고도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인천은 2-2 무승부를 거둔 뒤 일부 물지각한 팬들이 그라운드에 진입해 전남 그라운드 담당직원을 폭행하는 물의를 빚었다. 선수 2명을 전·후반 경고누적으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심판진에 항의하던 인천 서포터스가 운데 2명이 필드까지 넘어와 상황증거를 수집하려고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던 전남 직원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들은 사진을 지운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서둘러 돌려줬으나 이미 상황은 틀어질 수 없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라운드의 사고에 앞서 전남 구단이 고용한 여성 경호원은 원정 팬들에게 다가가 소

요 사태를 막으려다 신변에 큰 위협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터과 목 부위에 심한 타격을 입은 직원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한참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다가 경기장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입원 조치를 밟았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팬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뒤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사실은 현장의 인천 직원들 중 누구도 전남 측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폭행당한 홈팀 직원에게 "팬잖나"는 말도 건네지 않았다. 300여명으로 구성된 원정 응원단 중에는 인천 프런트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까지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전했다. 인천 팬들은 "(해당 직원에게) 휴대폰 사진을 찍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전남 측의) 한 여성이 우리를 향해 머리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유에 서건 폭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장내 아나운서가 걸걸한 욕설을 퍼붓던 인천 팬들에게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흥분할 대로 흥분한 이들은 관중석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온갖 욕두문자를 쏟아냈다. 당연히 증정제는 불가피하다. 사고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 및 보상, 구단 차원의 사과, 경찰 판단과는 별개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은 오래 전부터 도를 넘은 팬들의 응원으로 지탄을 받았다. 심판진의 퇴근을 막기도 했고, 일부는 경기장까지 난입한 사례도 있다. 그 때마다 벌금과 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프로연맹 담당자는 "이르면 6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구단의 미흡한 관중관리 책임도 있으나 팬들을 자제시키지 않은 인천은 전혀 할 말이 없다. 당연히 피하는 고스란히 선수단으로 향한다. 후반 중반부터 9명이 싸워 값진 무승부를 일궈냈음에도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기 어렵다. 일각에선 "벌금과 경고는 물론, 무관중 징계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유럽은 과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팬들을 영구적으로 경기장 출입을 막는다. 인천은 2주 간의 A매치 휴식기가 끝난 직후인 18일 상주상무와 홈경기를 갖는다. 또 한 번의 '단두대 매치'다. 뒤숭숭한 분위기는 불가피하다. 이래저래 웃을 수 없는 인천의 요즘이다. 광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축구전도사 정해성 '감동과 열정 사이'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서둘지 말고 프로다운 팀 만들어 달라"
베트남 HAGL구단주 운영철학에 감동
정감독도 데뷔후 2연승 의미있는 시작

지난달 베트남 프로축구 명문클럽 호앙아인 잘라이(HAGL) 사령탑으로 부임한 정해성(59) 감독은 "축구는 어디든 마찬가지 아니겠나. 낮은 환경이지만 잘 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다시 연락을 했다.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베트남이 체질인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처음 물갈이 때문에 심하게 앓기도 했지만 이제 순조롭게 적응 중이라고 했다. 평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인데, "베트남이 체질"이라며 여유를 보인 건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계약 당시 베트남에 한국축구의 성장 노하우를 전하는 첨병역할을 자임했다. HAGL은 2002년 월드컵 4강의 히딩크 사단, 2010년 월드컵 16강의 허정무 사단에서 코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정 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뛰어난 자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영입했다.

구단의 대우는 극진했다. 역할도 그냥 감독이 아니다. 테크니컬 디렉터다.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소년축구 전반을 관장하는 총 책임자다. 그런 그가 베트남에 도착한 뒤 몇 번이나 놀랐다고 했다. 가르치기 위해 온 곳에서 오히려 배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첫 번째가 구단주의 축구철학이다. HAGL 구단주는 응우옌 독 회장인데,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은 인물로 전해진다. 정 감독은 "처음 만난 식사자리에서 느낌이 딱 왔다"고 했다. 정 감독에 따르면, 구단주는 "정 감독이 우리 팀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 감독을 찾아서 모셔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며 절대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천천히 지도하면서 HAGL을 프로다운 프로팀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구단운영 철



정해성 감독

학에 정 감독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는 성격이 우선이다. 대개 결과를 내려고 외국인 감독을 영입한다. 그런데 성적 보다는 천천히 하면서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정 감독의 마음이 크게 움직인 것이다.

구단운영 목적이 국가대표팀의 전력강화에 있다는 구단주의 얘기도 깊은 인상을 줬다. 프로팀의 존재이유가 국가대표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구단주는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유소년 육성에 눈을 돌렸다고 한다.

HAGL의 클럽하우스는 한국의 K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시설을 자랑하는데, 유소년 육성에 힘을 쏟기 위해 투자한 것이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협력해 선진시스템을 배우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강원FC에 진출한 베트남 국가대표선수 쯔영이 대표적인 유스 출신이다. HAGL의 1군 선수단 평균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대부분이 유스팀에서 올라왔다.

정 감독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된다. HAGL의 유망주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함께 훈련해왔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V리그의 열기는 장난이 아니라고 했다. 매 경기 관중석이 꽉 찰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축구다.

축구장은 한국프로축구가 대동하던 1980년대를 연상시키며 다소 열악한 환경이지만 관중의 열기는 부럽기만 하다고 했다. 정 감독은 지난달 27일 V리그 데뷔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다. 4일 열린 사이공과의 원정경기에서도 승리하며 2연승으로 신바람을 냈다. 정 감독의 인기는 지금 상종가다.

넉넉한 웃음처럼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 나갔으면 한다. 히딩크가 한국에서 월드컵 신화를 썼듯, 베트남에서 '정해성 신화'를 썼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choihg2@donga.com

2017 K리그 대상 부문별 후보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 후보선정위원회는 'KEB하나은행 K리그 2017 대상 시상식'의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후보는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명단 가운데 각종 기록 지표를 비롯한 2017시즌 활약상을 토대로 선정했다.

K리그클래식 최우수감독상 후보는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제주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이 선정됐다. 최우수선수는 이근호(강원·FW), 이재성(전북·MF), 조나탄(수원·FW)이 후보에 올랐다. K리그 클래식 선수 가운데 만 23세 이하, 국내외 프로 출전했수 3년

이내, 해당시즌 K리그 전체경기 가운데 1/2 이상 출전선수를 대상으로 한 영플레이어상은 김민재(전북·DF), 이영재(울산·MF), 황현수(서울·DF)가 후보로 뽑혔다.

한편 K리그챌린지 ▲최우수감독상 후보는 김중부(경남), 송선호(아산), 박경훈(성남) 감독이 ▲MVP 후보는 라울(안산), 말걸(경남), 황인범(대전)이 각각 선정됐다. 개인상 수상자는 기자단 투표로 결정된다. 영광의 주인공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 K리그 2017 대상 시상식'현장에서 공개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겸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015-9900